

## 3·1봉화만세운동과 趙東植

박걸순\*

- 
- I. 머리말
  - II. '烽火告變' 시위의 주도
  - III. 독립선언서의 전달
  - IV. 피체와 법정투쟁
  - V. 만주 이주와 귀환
  - VI. 맺음말
- 

### I. 머리말

3·1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시위 형태로는 일부 주도자들이 사전에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나 태극기를 인쇄해 두었다가, 장날을 이용하여 장터에 모인 군중들에게 이를 배부하고 그들을 지휘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거나 만세를 연호하며 장터를 시위 행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였다. 물론 야간시위도 있었는데, 이때 모닥불과 횃불 등 불이 이용되었다. 이 같은 운동 형태는 서양인에게는 '주목할 만한 혁명'이고 '특유의 '폭동'으로,<sup>1)</sup> 일제에게는 한민

---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미국기독교교회총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 『The Korean Situation』(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4집, 1971, 445쪽); 내다니엘 페퍼, 『The Truth About Korean』(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4집, 550쪽).

죽의性情 중 ‘聲討法’으로 받아들여졌다.)<sup>2)</sup>

3·1운동의 초기 계획단계에서 비폭력 방침을 채택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우리에게서 폭력을 수반할 무력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sup>3)</sup> 따라서 ‘三寸舌’로 만세를 고창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sup>4)</sup> 1919년 3월 1일은 ‘창세기 이래 미증유의 맨손혁명으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한 특기할만한 날’이었다.<sup>5)</sup>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것은 민중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단결을 공고히 하고 독립운동을 전파하는 효율적 수단이었다.

한편 3·1운동은 지역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충북지역의 3·1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후발성을 보이거나 이후 4월 19일까지 꼭 한 달 동안 도내 전역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부터 청주 江內面 台城里에서 점화한 봉화만세시위가 청주 주변의 8개면과 충남과 경기 일대에까지 과급된 사실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sup>6)</sup>

3·1운동의 방법과 형태로서 봉화만세시위는 거의 전국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나,<sup>7)</sup> 특히 충남북에서 현저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3·1운

2) 朝鮮憲兵隊司令部·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朝鮮三一獨立騷擾事件』(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1973, 1143~1144쪽).

3) 『崔麟取調書』(1919. 4. 7, 京城地方法院 豫審掛). 최린은 예심판사 永島雄藏이 독립선언서 공약삼장 중 제2항을 폭동 교사로 몰아가려는 심문에 대해 우리에게서 무력이 없으므로 힘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李炳憲, 『三·一運動秘史』, 時事時報社, 1969, 595쪽).

4) 『權東鎭取調書』(1919. 7. 18, 京城地方法院 豫審掛, 『三·一運動秘史』, 202쪽).

5)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白巖朴殷植全集』 제2권, 동방미디어, 2002, 505쪽).

6) 박길순, 「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 제15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0, 25~29쪽.

7) 북한의 경우 봉화만세시위 기록이 남한보다 훨씬 희소하다. 이는 봉화만세운동이 실재하지 않았다고보다는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의 『독립운동사』나, 이병헌의 『三·一運動秘史』 등의 편찬 때 각 지역으로부터 3·1운동구술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때 북한은 상세한 구술 확보가 곤란하여 누락된 것으로 여겨진다.

동의 주요 시위방법이자 형태였던 봉화만세시위를 별도의 주제로 다룬 논문은 아직 없다. 봉화만세시위는 야간에 동리 주민들이 일제의 직접 탄압을 피해 산 위에 올라가 만세를 외치다가 내려오는 소규모의 평화적·소극적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았다. 이런 형태의 시위가 시작된 유래와 파급 과정, 인근 지역의 호응 양상, 이에 대한 일제의 대응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趙東植은 봉화만세시위에서 관건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동리에서 봉화만세시위를 3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주도하였다. 그가 주도한 봉화만세시위는 최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1운동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 까닭은 인근지역으로의 파급효과에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의 ‘烽火告變’이라는 법정진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역사적으로 봉화가 지니는 기능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아 배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출옥 후 1940년에는 만주 이주를 단행하여 길림 영안에서 생활하다가 광복 후 귀환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찍이 3·1운동사에서 주목되었으나,<sup>8)</sup> 이후 그를 구체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없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독립운동 사실보다는 조선족의 우상 趙南起의 조부라는 사실로 더 알려졌을 정도이다.<sup>9)</sup>

본고는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먼저 조동식의 ‘烽火告變’ 시위 주도를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그의 봉화만세시위 주도

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2, 162쪽; 金鎭鳳, 「湖西地方 3·1運動의 性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 1987, 145~146쪽.

9) 조남기는 1927년 충북 청주시 강내면 태성리 출생으로 1940년 조부를 따라 길림성 영길현 차로하로 건너갔다. 1944년 중국 팔로군에 입대하였고 동북군정대학을 졸업한 후 1947년 중국공산당에 정식 입당하였다. 이후 6·25전쟁에 참여하였으며, 중국군 최고 계급인 上將까지 진급하였고, 군사과학원 원장(1992)과 중국 최고위급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전국위원회 부주석을 역임(1998~2003)한 ‘조선족의 영웅’이다(곡애국·증범삼, 『조남기전』, 2004, 연변인민출판사). 그가 6·25때 중공군 장교로 참전한 사실이 밝혀지며 한동안 인척들이 연좌의 고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한중 수교 이후 재조명되고 있다.

를 통하여 그 목적, 파급 효과, 일제의 대응 등을 검토함으로써 3·1 운동사에서 봉화만세시위의 의의를 정립할 것이다. 이어서 그의 독립 선언서 전달, 피체와 법정투쟁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일가의 만주 이주와 생활 및 귀환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써 조동식의 항일투쟁의 전모와 봉화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조동식 관련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논의의 공백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II. ‘烽火告變’ 시위의 주도

충북에서는 3월 2일 청주에서 대량의 독립선언서가 발견되고, 10일 밤 청주농업학교 생도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인사와 연계하여 동맹휴학을 기도하였다. 일제는 이를 충북지역 소요의 시초로 파악하였다.<sup>10)</sup> 충북지역 3·1운동의 시발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다. 특히 의병장 한봉수의 3월 2일 청주 주도설이 있으나,<sup>11)</sup> 3월 19일 괴산장터에서 홍명희가 주도한 시위가 본격적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만세시위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충청북도장관은 3월 22일 청주 부근의 경비를 위해 대전수비대에 장교 이하 13명의 수비병을 파견하여 삼엄한 경비를 하도록 요청하였다.<sup>13)</sup> 그러나 바로 그

10) 朝鮮憲兵隊司令部・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朝鮮三一獨立騷擾事件』(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901쪽) 및 朝鮮憲兵隊司令部, 『大正八年 朝鮮騷擾事件狀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532쪽).

11) 경상대학교 국문과 신경득 교수가 1970년 정초에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 자택으로 한봉수를 찾아가 청취한 구술에 의하면 한봉수는 3월 1일 서울의 만세시위를 참가하고 밤새워 청주로 내려와 아침 8시경 남주동 싸진 거리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기마경찰대와 충돌하였다고 한다(신경득, 「의병대장 한봉수 웅이 말하는 청주 기미년 3·1운동」). 그러나 이 사실은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2) 박길순, 「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9쪽.

13) 朝特第61號, 1919. 3. 24, 朝鮮駐劄軍司令官 → 大臣, 「22日午後ニ於ケル情

이튿날인 3월 23일 밤, 청주 강내면 태성리 인근 산정에서 마을 주민 수십 명이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주도자는 태성리에 거주하던 趙東植이었다. 이곳의 봉화만세시위는 23일에 이어 24일과 26일 밤을 이용하여 3일간 계속되었다. 일제는 이날의 봉화만세시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3월 23일 청주군 강외면 외 2면에서 각 부락민이 부근의 산에 올라가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43명을 검거하여 이를 훈계 방면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횃불운동은 즉시 각지에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중은 대개 근처 농민이고 노인, 어린이가 섞여 있었다. 동기는 모두 동네에서 엉뚱한 짓을 잘하는 자가 선동하여 나서게 된 것으로, 물론 그 목적은 시위에 있지만 반면에는 또 자기의 의기나 자기 동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다. …<sup>14)</sup>

이 기록은 다소 봉화만세시위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으나, 즉시 각지로 전파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의 재판 판결문에는 그가 주도한 봉화만세시위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청주 인근 지역은 물론 충남과 경기도 일대에까지 파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강내에서 촉발된 봉화만세시위에 영향을 받아 여러 지역에서 앞 다투이러 따라 하여 치안을 크게 방해하였다고 우려한 것이다.

피고(趙東植; 필자)는 조선독립에 관한 시위운동을 위해 옛적의 烽火告變의 예를 따라 산꼭대기에서 焚火를 올려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면 더욱 기세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發意 아래 대정 8년 3월 23일, 24일, 26일의 3일 동

況], 『3·1運動編(一)』, 141쪽.

14) 朝鮮憲兵隊司令部, 『大正八年 朝鮮騷擾事件狀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533쪽).

안 매일 밤 犯意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청주군 강내면 태성리의 산꼭대기에서 마을 사람 수십 명을 선동하여 篝火를 焚火하고 소리 높여 독립만세를 절규함으로써 그가 살고 있는 면의 여러 마을은 물론 그 부근의 강외면, 옥산면, 남이면으로부터 멀리는 충청남도, 경기도의 일부에까지 파급되어 여러 지역에서 함께 앞 다뿔 焚火를 하고 대한국만세를 크게 외치게 하여 크게 치안을 방해하였다. ...15)

한편 이날의 봉화만세시위에 대해 주목되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전문에 의한 기술이라 참여 인원 등 다소 과장이 있기는 하나, 강내면에서 까치내를 마주하고 있는 조치원 주민과의 연대투쟁과 이에 대한 일제의 대응을 상세히 알려준다.

청주, 3월 23일 밤 11시경 조치원 동남 편으로 약 15, 6리 되는 청주군 강내면 부근에서부터 산에 불을 놓고 만세를 부르며 기세당당하게 시위운동을 개시하여 조치원으로 내려왔는데 그 수효는 3천여 명이였다. 조치원서는 수백 명이 집합하여 이를 영접하며 만세를 부를 때 조치원경찰서에서는 소방대를 소집하여 만일을 대비하였다. ... 16)

강내의 경우처럼 봉화만세시위가 한 마을에서 3일간 계속된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그런데 강내 봉화만세시위에서 몇 가지 규명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

먼저 주도자인 趙東植이 어떤 인물이었나 하는 점이다. 조동식은 1873년 풍양조씨 집성촌인 충북 청원군 강내면 산단리 고심동에서 부친 珪夏와 모친 南陽洪氏 사이에서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sup>17)</sup> 청주에 풍양조씨가 세거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청주 일원에

15) 『大正八年 刑第271號 趙東植判決文』(1919. 4. 19,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16)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885쪽.

17) 강내면 태성리 선영에 있는 묘비에는 그의 출생지를 高深洞이라 하였으나, 이는 1914년의 군면 폐합 시 산단리로 편입된 古心里(고시미)가 맞다.

세거하는 풍양조씨는 대개 15세 趙滄의 장남 趙伯耘(1613~1682)의 후손이다.<sup>18)</sup> 조동식의 선대가 이곳에 정착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5세 湜부터 연기와 청주 일원에 묘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미뤄 보아 17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의 가문에서 청주 정착 이후 관직에 진출한 인물은 거의 없다. 경술국치에 분개하여 순절한 趙章夏(청원 가덕)는 파조인 12세 청도공 宗敦에서 갈린 척족이다.<sup>19)</sup>

그는 어려서 옆 동네인 궁현리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다고 한다. 그는 시골 사람치고는 비교적 유식한 편에 속하였고 기골이 장대하였다고 한다.<sup>20)</sup> 또한 성정이 활달하고 글짓기에 조예가 깊었으며,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강렬한 애국사상을 지녀 인근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sup>21)</sup> 그가 3·1운동으로 투옥 후 벌인 법정투쟁의 공방을 보면 국제정세에도 밝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봉화만세시위를 주도한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동식은 부친 규하로부터 비교적 많은 전답과 임야를 물려받아 부유한 농부였다. 그러나 그의 재산은 아들 용구 대에 와서 크게 줄어들어 자소작농 정도로 전락하였다. 결국 조용구가 만주로 이주한 것은

18) 청주문화원, 『清州의 뿌리를 찾아서』, 2012, 401~406쪽.

19) 豊壤趙氏世譜所, 『豊壤趙氏世譜』(五重刊 戊午譜) 4, 1978, 2505쪽. 舊譜에 그의 이름은 東協으로 되어 있다. 世譜에는 字가 慶烈이라 하였고, 묘비에는 號를 慶菴이라 하였는데 그 출처를 알 수는 없다. 현재 강내면 산단리에 풍양조씨 김성촌이 형성(20여 호 80여 명)되어 있으며, 그의 부친 묘소도 산단리에 있다. 세보에 의해 그의 가계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孟 - 之藺(1) - 溫詢(2) - 振圭(3) - 昌(4) - 季鶴(5) - 炎暉(6) - 愼(7) - 安平(8) - 溫之(9) - 益貞(10) - 彭(11) - 宗敦(12, 派祖) - 廷幹(13) - 守一(14) - 湜(15) - 汝彬(16) - 怱(17) - 世圭(18) - 鎰(19) - 義源(20) - 商永(21) - 秉華(22) - 珪夏(23) - 東植(24) - 龍九(25) - 南起(26)

20) 趙興衍(조동식의 증손, 1946년생) 서면 증언(2013. 4. 18). 이 증언은 필자의 서면 질문에 대해 조흥연이 자신의 기억 및 형(조수연), 누나(조옥연), 재당숙(조남옥)의 증언을 청취하여 답신한 내용이다.

21) 곡예국·증법삼, 『조남기전』, 2쪽.

경제적 형편 때문이었다.<sup>22)</sup>

평소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조동식은 고종의 인산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3)</sup> 귀향 후 만세시위의 기회를 엿보던 그는 드디어 3월 23일 주민들을 인솔하여 봉화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이다.<sup>24)</sup>

조동식의 봉화만세운동 주도 이전에도 밤에 산 위에 불을 피우며 만세를 외치는 형태의 시위가 있었다. 3월 7일 밤, 부여 홍산면민이 각 처 산 위에서 횃불을 올리며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출동한 일본 헌병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 바 있다.<sup>25)</sup> 이것이 충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앞서서 불을 이용한 만세시위의 기록이다. 충북에서는 3월 15일 진천에서 만세시위를 계획했던 李相稷이 피체되자, 傑尾山·陶唐山·文案山·烽火山 등 읍내 주변 산꼭대기에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분산하여 횃불시위를 전개하였다.<sup>26)</sup> 3월 20일에는 음성군 삼성면과 단양군 각처에서 횃불시위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sup>27)</sup>

이들 시위는 강내면 시위보다 선행의 사실임은 인정되나, 단순한 야간 시위의 성격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조동식이 주도한 강내면 시위는 국가의 변란이 있을 때 봉화를 올려 서로 알리고 경계한다는 의미의 ‘烽火告變’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3·1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횃불이나 봉화시위를 전개하다 피체된 바 있으나, 조동식처럼 법정에서 봉화시위의 목적을 명백히 밝힌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시위는 이전의 시위와는 달리 고사를 참작하여

22) 곡예국·증범삼, 『조남기전』, 11쪽.

23) 趙興衍 서면 증언.

24) 그런데 이 봉화만세시위는 일제의 日次報告 등에 누락되어 있다. 그 까닭은 일제가 출동하지 않았거나, 소규모의 시위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기존 충북 3·1운동의 시위 회수 통계에서도 누락되었다.

2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28쪽. 이보다 앞선 3월 3일 밤 11시 반경, 예산읍내 동쪽 산 위에서 시위가 있었으나, 운동 형태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없어 봉화만세시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독립운동사』 제3권, 145쪽).

2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67쪽.

2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63, 78쪽.

불을 이용한 만세시위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후 인근 각지로 퍼급되어 만세시위의 전형적 형태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작지 않다.

그런데 야간에 불을 이용한 형태에 대한 기록은 약간씩 다르다. 조동식의 경우, ‘篝火를 焚火’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다. 3월 하순의 산꼭대기이니 날씨도 쌀쌀하고 주변이 컴컴했을 터이니 난방과 조명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炬火’, 즉 야간에 횃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형태도 전국적으로 산견된다.<sup>28)</sup> 이는 대부분 불이 지니는 신호나 소통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야간 시위를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리고 보면 3·1운동 초기에는 불을 사용하되 봉화의 개념을 지닌 시위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산 위에서 이웃마을에 전파하기 위해 불을 피운 것과, 산 위나 평지에서 횃불을 들고 벌인 시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봉화만세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한밤중에 동리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반드시 봉수시설을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라도, 인근 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파되는 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봉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조동식의 경우는 비록 봉수시설을 이용하여 봉화를 올린 것은 아니다.<sup>29)</sup> 그러나 그는 봉화의 기능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한 것이므로 봉화만세시위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조동식이 주도한 강내면 봉화만세시위에서 규명하여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장소를 확정하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그 장소를 태성리 산꼭대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태성리에는 낮은 구릉 정도의 산이나 土城의 흔적이 있을 뿐 인근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산은 없다.<sup>30)</sup> 태

28) 朝鮮軍司令部, 『朝鮮に於ける獨立運動に關する件』 『三・一運動日次報告』 (『3·1運動編(一)』, 184쪽).

29) 조동식이 옛 봉화시설을 이용하여 봉화를 올린 것이라는 기록(곡애국·증범삼, 『조남기전』, 3쪽)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30) 원태성 마을의 동쪽 구릉에 태성리 토성이 있는데, 현재는 보건진료소와

성리에서 산단리를 지나면 있는 저산리의 저산성에는 조선 초 이전에 사용되었던 봉수의 흔적이 확인된다.<sup>31)</sup> 그러나 이곳은 태성리 주민들이 3일간이나 계속 야간에 이동하여 봉화시위를 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산도 험하다.

현지 지형 조사 및 증언 청취 결과, 당시 봉화만세시위 현장은 산단리와 저산리에 걸쳐 있는 望德山으로 비정하였다.<sup>32)</sup> 이 산은 지방도 594번에 연결해 있는 태성리 조동식의 묘소에서 동막천을 건너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산이다. 비정 근거는 이 산에서 봉화시위를 벌이고 하산한 태성리 주민들이 충남 연기군 주민들과 연합시위를 벌였다는 기록이다.<sup>33)</sup> 곧 이 인근에서 연기군이 내려다보이는 산은 망덕산이며, 이곳에서 사곡리 방향으로 하산하여 절골을 지나 황탄에서 배를 타고 미호천을 건너면 바로 연기군에 닿는다. 산단리 출생으로 이곳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었을 조동식이 태성리 인근에서 가장 가깝고 자신의 집성촌이며 사방이 트인 이곳을 선택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여겨진다. 망덕산은 태성리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걸어서 15분이면 당도하는 가까운 곳이다. 망덕산은 그리 높은 산은 아니나, 산정에서 강의·부용·청주·남이·옥산·오송은 물론 충남 연기지역을 조망할 수 있다.<sup>34)</sup>

---

공장이 들어서 대부분 파괴되고 100m 정도의 흔적만 남아 있다. 그러나 봉화 기능을 할 만한 높이는 전혀 아니다(청원군·청주대학교박물관, 『文化遺蹟分布地圖 -清原郡-』, 2000, 261쪽).

- 31) 청원군·청주대학교박물관, 『文化遺蹟分布地圖 -清原郡-』, 260쪽. 저산성 봉수터는 『世宗實錄地理志』에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의 기록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 조선 초까지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적산(해발 206m) 정상부에 있는 단군성전 부근이 봉수 터로 추정된다.
- 32) 趙興衍 서면 증언. 현지 노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산 이름을 아는 이가 거의 없으며, ‘망국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각종 지도에도 이 산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1/50,000지도에는 망덕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네이버 지도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 33)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885쪽.
- 34) 저산리 주민들은 이 산을 학천산(봉)으로 부르고 있다. 그 까닭은 저산리에 鶴泉이란 우물이 있어 유래한 것인데, 현재 이 산 밑을 관통하는 ‘학천터널’ 공사가 한창이다.

조동식이 주도한 봉화만세시위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근 지역으로 파급되어 만세운동의 전형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3월 23일 시작된 태성리의 시위는 곧 청주 인근지역으로 파급되었다. 4월 1일에는 청주 인근 8개 면의 산 위에서 일제히 불이 타올라 일제를 긴장시켰다. 특히 4월 8일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의 햇불시위를 주도한 金舜九는 조동식과의 연계를 시사한다. 김순구는 이날 밤 9시경, 마을 주민 수십 명을 朴來賢의 집 부근 우물가로 모이게 한 뒤 시위 행진을 벌여 동리 남쪽 산 위에서 햇불을 올리며 만세를 고창하였다.<sup>35)</sup> 그런데 김순구는 조동식이 주도하는 강내면 봉화만세시위에 참가한 뒤 귀향하여 고향에서 햇불시위를 주도한 것이라고 한다.<sup>36)</sup> 이는 강내면 봉화시위의 파급 실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1운동 당시 충북 일원에서는 12개 처에서 14회의 봉화·햇불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조동식의 강내면 봉화만세시위 이전에도 햇불시위는 있었다. 그러나 강내면 시위 직후 청원·영동·음성·옥천 등지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인다. 충북지역에서 전개된 봉화·햇불만세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충북지역 봉화·햇불만세시위 일람><sup>37)</sup>

일시	장소	상 황
3. 15	진천읍 각 동리	만세시위를 계획하던 이상직이 피체되자 걸미산·도당산·문안산·봉화산 등 각 동리 산 위에서 햇불시위
3. 20	음성군 삼성면	면내 산 위에서 햇불을 올리면 만세시위
3. 20	단양군 각 처	밤 8시, 군내 각 처에서 순차적으로 햇불시위

35) 『大正8年 公第209號 金舜九判決文』(1919. 6. 18,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3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90~91쪽. 이는 옥천지방 유림대표 琴榮佑의 증언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

37) 이 일람표는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3. 23, 23, 26	강내면 태성리	조동식의 주도하에 수십 명이 3일간 산꼭대기에서 봉화시위
3. 30	부용면 등곡리	마을 주민들이 횃불시위
4. 1	청원군 일원	청주·오창·강외·부용·북일·북이·강내·옥산 등 8개면 산 위에서 연합 횃불시위
4. 1	영동군 황간면	황간역 앞산에서 수백 명 횃불시위
4. 3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마을 뒷산과 마산리 와우형산에서 야간 횃불시위
4. 3	음성군 감곡면	송석봉 등 수십 명 응봉산에서 횃불시위
4. 6	청원군 문의면	밤 8시, 문의면 부근 산 위에서 1천 3백 명이 횃불시위
4. 8	옥천군 군서면	밤 9시, 하동리에서 김순구 주도로 50여 명이 산 위에서 횃불시위
4. 9	음성읍 일원	밤 9시, 음성읍 산 위에서 5백여 명 횃불시위

한편 조동식의 재판 판결문에는 강내에서 시발한 봉화만세시위가 충남과 경기 일부에까지 파급되었다고 하였다. 충남은 마주하고 있는 조치원을 포함한 연기군 일원에서 즉각 호응하였다. 3월 23일 밤에는 북면(조치원)·서면·남면의 3개면 10여 개 동리에서 호응하여 인접한 청주군 강외·강내·옥산면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횃불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sup>38)</sup> 면내 각 동리가 모두 호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남면에서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에 걸쳐서 밤 10시경 양화리·진의리·송담리의 각 마을에서 약 1백 명의 군중이 산 위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자 일제가 출동하여 주모자 9명을 체포하기도 하였다.<sup>39)</sup>

충남에서는 처음에 연기와 천안·아산 일원에서 강내 봉화만세시위에 호응하더니, 4월에 이르러서는 충남 도내 각 군에서 호응하였다. 3월 30일에는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주변 산 20여 개소에서 횃불시위가 있었고, 4월 4일에는 예산읍을 중심으로 남쪽은 현제고개, 북쪽은

3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12~115쪽.

39) 高第10138號, 1919. 4. 5, 『獨立運動=關スル件(第38報)』(『3·1運動編(一)』, 352~354쪽).

금오산, 동쪽은 시산, 서쪽은 관영산 등 군내 18개소에서 횃불시위가 있었다. 이날 당진군내 8개소에서 산상 횃불시위가 벌어졌다.<sup>40)</sup> 일제는 충남에서 전개된 75회의 만세시위 중 야간 횃불시위가 45회로 파악하였는데,<sup>41)</sup> 이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기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실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충남에서는 총 339회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중 206회(60.8%)가 봉화만세운동으로 파악되었으니, 충남지역 만세운동의 특징으로 평가할 만하다.<sup>42)</sup>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강내면의 봉화만세시위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타 시도에서 전개된 봉화만세시위의 가장 전형적 형태는 4월 8일과 9일에 연속된 原州郡 3개 면의 시위였다. 4월 8일에는 건동면 반계리·동화리·궁촌리, 지정면 보통리·가곡리·간현리·안창리에서 주민들이 마을 산에 올라가 횃불을 올리며 만세를 고창하였다. 이어 9일에는 지정면 안창리, 부른면 법촌리·손곡리에서 봉화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따라서 원주 3·1운동의 특징으로 봉화만세시위가 지적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곳의 봉화만세시위가 강내면의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충남지역과 함께 4월 들어서 봉화만세시위가 시위의 전형적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일제는 겉으로는 봉화만세시위가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그 근절에 부심하였다. 다음은 일제 헌병대의 충북지역 봉화만세운동에 대한 기록이다.

… 또 야간에 산에 올라가 횃불을 피우고 오직 만세만을 부르는 운동자가 있었다. 이 운동자는 온화하여 목이 쉬도록

4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45쪽.

41) 朝鮮憲兵隊司令部, 『大正八年 朝鮮騷擾事件狀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536쪽).

42) 金珍皓, 『忠南地方 3·1運動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48~151쪽.

만세를 고창 절규하다가 피로해지면 스스로 해산한다. 그 종류도 노인, 소아 등이 뒤섞여 있어 거의 한 부락 호당 1인 또는 2인 정도가 의무적으로 나가는 듯하다. 그래서 시험 삼아 그 집에 가서 물어보면 주부는 “산에 만세 하러 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런 무리는 경비기관 출동의 소리를 들으면 즉각 도망치는 자들로서 그 심리는 평범하여 거의 아무런 의의도 없는 것으로 본다.<sup>43)</sup>

일제는 주민들이 야간에 산에 올라 봉화만세시위를 벌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들은 야간통행 금지와 사전 가택수색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위현장에는 즉각 무력을 파견하여 실탄사격을 가하였다.

3월 23일부터 강내면에서 잇달아 봉화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이에 강외와 옥산 등지에서 호응하자, 27일 청주경찰서장이 경찰 10여 명과 수비대 병력을 대동하고 오송에 나타났다. 오송은 태성리에서 미호천을 마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그는 주민들에게 ‘엄중한 설유’를 하고 봉화만세시위 참가자를 색출하여 10여 명을 검거하는 한편 가택수색을 벌였다.<sup>44)</sup>

야간시위와 봉화만세시위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야간 통행이 제한되었다. 일제는 야간 통행자를 검문하여 일일이 성명·행선지·용건 등을 조사하는 등 엄격히 단속하였다. 또한 수비대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서로 협력하여 시위적인 행군과 야간연습을 시행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sup>45)</sup>

일제는 야간 시위운동, 특히 봉화만세시위에는 실탄사격을 감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일제는 이 같은 무력 탄압을 봉화만세운동이 다

---

43) 朝鮮憲兵隊司令部, 『大正八年 朝鮮騷擾事件狀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496쪽).

44)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885쪽.

45) 朝鮮憲兵隊司令部, 『大正八年 朝鮮騷擾事件狀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658~660쪽).

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평가하였다.<sup>46)</sup>

충청도의 한 지역에서는 4월 1일의 봉화만세시위 중 일제가 사격을 가하여 1명이 죽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날 주민들은 약속에 따라 저녁에 나와서 만세를 불렀고, 자정 무렵 산 위에서 20여 명의 남자와 소년들이 봉화를 올리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 때 8명의 일본 헌병이 출동하여 사격을 가한 것이었다. 이날의 발포로 김금동(15세)이 턱과 팔에 관통상을 당하였고, 방춘호(25세)도 다리에 부상을 당했는데 그의 형은 사망했고 동생 방신식(21세)도 다리와 팔 등 여러 곳에 총상을 당하였다. 같은 마을에 사는 박성군(44세)도 여러 군데 총탄을 맞았다. 이는 미국 기독교 목사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sup>47)</sup>

### Ⅲ. 독립선언서의 전달

3·1운동의 지방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민족대표 명의의 독립선언서가 전달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충북은 당초 3·1운동 주체들이 배포하고자 한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충북지역 독립선언서 배포를 담당한 천도교 측 印宗益이 청주에 도착한 3월 2일 즉각 피체되며 선언서를 압수당하여 배포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sup>48)</sup> 이는 충북의 3·1운동이 타도에 비해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46) 朝鮮憲兵隊司令部, 『大正八年 朝鮮騷擾事件狀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636쪽).

47) 미국기독교교회총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 『The Korean Situation』(『독립운동사자료집』 제4집, 376쪽). 이 사실은 김병조의 『韓國獨立運動史略』에도 수록되어 있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106~107쪽). 그러나 지명을 밝히지 않아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48) 印宗益은 普成社 직원으로서, 2월 28일 사장 李鍾一의 명을 받고 독립선언서 2천여 매를 지니고 全州로 내려가 3월 1일 천도교 전주교구에 1,800여 매를 전달하고, 2일 오후 그 나머지를 배포하기 위해 淸州에 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충북에서 중앙지도체와 연계에 의한 독립선언서의 전달은 차단당하였으나, 개인적 활동을 통해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그 하나는 고종의 인산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한 인사들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내려온 경우이다. 예컨대 홍명희와 한봉수는 서울에서 손병희를 만나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고 귀향하여 각각 괴산과 내수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sup>49)</sup> 또한 가덕 출생으로 경성중앙학교 학생이던 신영호는 독립선언서를 지니고 청주로 내려와 농업학교 학생들에게 시위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sup>50)</sup>

독립선언서가 전달되는 또 하나의 경로는 서울에서 여러 매를 받아 온 사람이 이를 다시 몇몇 사람에게 분배하여 배포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조동식이다. 조동식은 3월 25일 조치원에 사는 金在衡으로부터 50여 매의 독립선언서를 전달 받아 이를 인근에 배포하였던 것이다.<sup>51)</sup>

조동식은 3월 25일, 김재형이 보낸 金某로부터 50매의 독립선언서가 든 한 통의 봉투를 전달받았다. 그는 이 중 한 부를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전부는 마을 소사인 許永大로 하여금 이웃 마을인 華亭里에 배포하도록 하였다.<sup>52)</sup> 25일은 23, 24일에 걸쳐 연속 봉화만세시위를

---

작하였으나 곧 미행한 일경에 피체되고 독립선언서도 모두 압수당하였다(『三·一 獨立宣言關聯者訊問調書(印宗益 關聯者 調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3, 국사편찬위원회, 1990, 316~345쪽).

49) 박결순, 「의병장 韓鳳洙의 항일투쟁」,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2, 147~149쪽.

50) 『大正 八年 刑上第137號 申鑠浩外判決文』(1919. 5. 21, 高等法院). 그는 청주농업학교 학생 9명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어 보안법 위반 및 출판물 위반 혐의로 10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51) 판결문에는 ‘출처 불명의 한국 독립을 고취하는 불온의 비밀 출판물’, 또는 ‘한국 독립을 고취하는 불온의 文詞를 揭記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당시 판결문에는 독립선언서를 이러한 형태로 표기하였고, 또한 3·1운동 초기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달된 문건은 독립선언서 밖에 없으므로 독립선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2) 『大正8年 刑第209號 趙東植判決文』(1919. 4. 19,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결행한 데 이어 26일의 시위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조동식은 봉화만세시위의 주도과 독립선언서의 전달, 배포를 동시에 진행하였던 것이다.

김재형(29세)은 조치원에 거주하는 『每日申報』 판매업자였다. 그는 고종의 국장에 참배하기 위해 연기청년회 대표인 孟義燮, 全炳壽 등과 함께 ‘연기군민 대표’ 자격으로 상경하였다가 3월 1일 탑골공원의 선언식과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sup>53)</sup> 당시 기독교도였던 김재형은 경성기독교청년회관에서 朴東完을 만나 5백여 매의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고 고향에서의 배포를 부탁받았다. 그가 기독교 목사로서 33인의 민족대표로 참가한 박동완과 접촉하여 다량의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았음은 분명하다.<sup>54)</sup> 이는 김재형이 기독교 측 독립선언서 전달의 주요 계선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귀향한 김재형은 이를 비밀리에 보관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 때 강내에서 연일 봉화가 타오르고 만세합성이 터지자, 그는 이를 독립선언서 배포의 적기로 판단하고 배포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곧 그는 동리사람 金在石에게 독립선언서 350매를 쥐서 청주군 문의면과 미원면, 보은군 보은읍에 반포케 하고, 나머지 150매는 50매씩 봉투에 나눠 넣어 趙東植 · 金鳳會 · 朴準平 등에게 교부하여 각처에 살포하도록 전달하였다.<sup>55)</sup> 대개의 경우, 만세시위 주도자들은 미리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시위를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조동식은 시위 주도중에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이를 배포한 드문 경우이다. 따라서 김재형이 조동식에게 독립선언서의 전달을 의뢰한 것은 강내 봉화만세운동의 과급력을 인정하고, 향리에서 그의 영향력을 인정한 때문으로

53) 지수길, 「일제하 충남 조치원 유지, 맹의섭(1890~?)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 《역사와 역사교육》 제3·4호, 웅진사학회, 1999, 592~593쪽.

54) 김재형 판결문에는 그에게 독립선언서를 교부한 인물에 대해 ‘住所 氏名 不詳者’라고 하였으나, 그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심문 및 법정진술 때 3월 1일 경성기독교청년회관 앞에서 朴東完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입수했다고 분명히 대답하였다(『大正8年 刑第278號 金在衡判決文』, 1919. 4. 19,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55) 『大正8年 刑第278號 金在衡判決文』(1919. 4. 19,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여겨진다.<sup>56)</sup>

일제는 김재형의 독립선언서 배포 사실을 충북 기독교도와의 연계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충북 3·1운동에 기독교가 적극 참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세에도 영향이 작았다고 파악하였다.

… 충남 조치원에 거주하는 每日申報 지국장인 기독교도 金在衡 같은 자는 경성기독교청년회원으로부터 격문 수백 장을 교부받고 이를 청주군 및 보은군 구장, 면장 등에 배포하여 선동한 사실이 있으나, 충청북도의 교도와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요컨대 기독교는 소요에 관계가 적고 그 교세의消長에도 영향이 작았다.<sup>57)</sup>

독립선언서 전달로 인해 조동식은 공주지법 청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에다 출판법 위반이 추가되어 징역 2년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하여 경성복심법원에 항고하여 원판결이 취소되어 출판법 위반은 취소되었으나,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았다.<sup>58)</sup>

한편 김재형도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법정투쟁을 벌였다. 그 또한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은 취소되었으나, 2년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sup>59)</sup> 그는 곧 1심과 2심에서 자신에게 변론도 허가하지 않은 재판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의와 인도에 기초한 의사의 발동으로서 범죄가 아니라는 취의서를 제출하여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특히 그는 상고취의서에서 이미 일본이 영일동맹에서 한국

---

56) 김재형의 본적은 강내면 태성리의 이웃 동리인 궁현리 16번지이다. 따라서 비록 두 사람의 연령차는 있으나,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김재형이 1945년 청원 은적산에 국조 단군 제단을 건축할 때 청주·청원 지역 인사들에 의해 초대 檀君奉讚會長에 추대된 사실도 지역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청주청원국조단군봉찬회, 『檀君聖殿沿革』, 2008).

57) 朝鮮憲兵隊司令部, 『大正八年 朝鮮騷擾事件狀況』(『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593쪽).

58) 『大正8年 刑控 第261號 趙東植判決文』(1919. 5. 17, 경성복심법원).

59) 『大正8年 刑控 第260號 金在衡判決文』(1919. 5. 10, 경성복심법원).

의 독립을 확약하였고, 민족자결주의가 전 세계를 풍미하는 시대에 한국의 독립을 외치고 만세를 불렀다고 참혹한 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제 판사와 법리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그의 상소는 기각되어 2년간 옥고를 치렀다.<sup>60)</sup>

김재형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자, 이를 크게 동정한 연기청년회 회장 孟義燮와 조치원 유지들이 협의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탐지한 일제의 제지로 무산되고 말았다.<sup>61)</sup>

#### IV. 피체와 법정투쟁

조동식은 봉화만세시위를 주도한 직후 일제에 피체되었다. 그는 집으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여러 명의 일본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저항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연행 당하였다.<sup>62)</sup> 그는 청주경찰서에서 취조를 당한 후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예심을 받았다. 그는 4월 19일 조선총독부 검사 淸水源의 간여 하에 예심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그에게 적용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右 피고의 보안법 위반 사실은 동법 제7조와 형법 제55조

60) 『大正8年 刑上 第140號 金在衡判決文』(1919. 6. 7, 고등법원).

61) 朝鮮憲兵隊司令部·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朝鮮三一獨立騷擾事件』(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959쪽). 맹의섭은 인산에 참여한 후 귀향하여 3월 18일의 구장대시위와 동월 23일의 반암시위를 주도하였고, 연기청년회와 호서기자동맹 활동 등을 펼쳤다(지수길, 「일제하 충남 조치원 유지, 맹의섭(1890~?)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 592~596쪽).

62) 조동식은 피체 당시 일경에게 강력하게 저항하였다고 한다. 그는 일본 형사 두 명을 제압하고 두들겨 패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여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한다. 이 때 둘째 머느리가 광목천을 들고 나가 시아버지의 피를 닦아주려 하였는데, 일경이 발로 차며 제지하였다고 한다(趙興衍 서면 증언 및 면담 증언).

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출판법 위반의 점은 동법 제14조 및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나 병합죄인 까닭에 형법 제47조에 비추어 무거운 출판법 위반죄에 법정형이 가중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를 징역 2년에 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sup>63)</sup>

조동식은 이 같은 예심 판결에 불복하여 곧 경성복심법원에 공소신립하였다. 경성복심법원에서는 조동식에게 제령 제7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려 하였으나,<sup>64)</sup> 봉화만세시위가 그 공포 이전의 일이므로 보안법 위반을 적용하였다. 경성복심법원은 그가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사실에 출판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소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량의 변화는 없었다.<sup>65)</sup>

이에 조동식은 즉각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는 상고 취의에서 자기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초한 의사 발동이므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과 제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부당한 것으로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일이라고 항변하였다. 또한 상고 추가 취의에서 더욱 논리적으로 일제의 판결을 공박하였다.

… 본인의 금번 행위는 일본 정부가 승인한 民族自決主義를 들고 正義 人道에 기초를 두고 自主 自立을 표시한 고로 世人이 이에 同情한 것인데 이를 처벌한 판사나 人道 正義의 존중을 알고 있는 일본인도 모두 이를 축하하고, 또 憲法의 이른바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에 기초하여 나타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制令 제7호를 급히 반포하여 강제로 이에 의해 형벌에 처하려는 것은 敵對的 惡意를 나타낸 것으로 가령 敵對라고 생각하면 捕

63) 『大正8年 刑第271號 趙東植判決文』(1919. 4. 19,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64) 제령 제7호는 3·1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19년 4월 15일, 3·1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공포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으로서 보안법보다 형량이 중하였다.

65) 『大正8年 刑控 第261號 趙東植判決文』(1919. 5. 17, 경성복심법원).

虜로서 취급하는 것은 가하나 형벌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복하여 추가 취의서를 제출하였다. ...66)

상고 추가 취의서에서 그는 먼저 민족자결주의와 정의·인도·자유·자립을 거론하며 이는 판사나 다른 일본인들도 승인한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세계의 정세를 거론하며 일본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일본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 언론출판의 자유를 적시하며, 봉화만세시위와 독립선언서의 전달이 이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네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그는 초법적인 제령 제7호의 정치적 의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자신을 형벌에 처하려는 것은 적대적 악의를 드러낸 것이니 차라리 포로로 취급하라고 항변한 것이다. 3·1운동으로 피체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많은 사람들이 상고를 하며 취의서에서 민족자결주의와 자유·정의·인도·평화의 국제정세를 거론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조동식처럼 일본 헌법 조항을 거론하고 제령 제7호를 급히 제정 공포한 의도를 간파하여 지적하며, 이 같은 적대적 행위를 할 바에는 차라리 포로 취급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특별히 고등교육도 받지 않은 한낱 시골 농군의 법정투쟁으로서의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 형사부는 조선총독부 검사 草場林五郎의 의견을 듣고 조동식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하였다.

결국 조동식은 2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가 공주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아들 용구와 한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회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니 그가 서대문형무소에 이감되어 있을 때에는 형편상 면회를 자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sup>67)</sup> 1921년 서대문형무소로부터 조동식의 만기출소 연락을 받고 아들이 모시고 내려오기 위해 상경하였으나, 그가

66) 『大正8年 刑上 第190號 趙東植判決文』(1919. 6. 12, 고등법원).

67) 서대문형무소의 수형 자료를 조사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옥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혼자 걸을 수조차 없자 동리에서 장정 8명이 같이 올라가 가마에 태워 귀향하였다고 한다.<sup>68)</sup>

## V. 만주 이주와 귀환

출옥 후 조동식은 옥고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한동안 인근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사찰계 형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의 근황을 감시하러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출옥 이후에도 그는 자기 집 사랑방에서 동리 사람들과 모여 일제의 수탈을 비판하는 등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였다고 한다.<sup>69)</sup>

그의 손자 조남기가 취학연령이 되자, 조동식은 손자의 학교 입학에 위해 부득이 창씨개명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창씨명은 본관과 같은 의미의 豊田으로 하였다. 그 때 조동식은 손자에게 창씨개명의 불가피성을 말하며 우리 민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풍양조씨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긴 조남기는 학교에서 일본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았으며,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만 사용함으로써 여러 번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조동식은 손자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동리 서당에 입학시켰다.<sup>70)</sup> 이는 출옥 후 그의 민족의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가세가 점점 기울어갔다. 가산을 물려받은 아들 조용구는 농사일에는 전혀 무관심하였다. 서생 티가 짙은 그는 시문을 즐겼고 하루 종일 책 속에 파묻혀 지냈다. 조남기가 태어나던 1927년 무렵 집안 형편은 상당히 영락해졌다. 부농이던 그 집안은 이제는 자소작농

---

68) 趙興衍 서면 증언. 옥고로 인해 다리가 새 다리처럼 야위어 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69) 趙興衍 서면 증언.

70) 곡애국·증범삼, 『조남기전』, 9~10쪽.

으로 전락하였고, 점차 빛에 쫓들리게 되었다.<sup>71)</sup>

이로 말미암아 조동식과 조용구 사이에 재산 관리를 둘러싸고 갈등도 일어났다. 결국 빛에 쫓들리게 된 용구는 1938년 어느 겨울 밤, 먼저 만주로 망명의 길에 올랐다. 조동식도 고향에서의 생활에 낙이 없자 만주 이주를 결심하고 1940년 아들 뒤를 따라 68세의 노구를 이끌고 渡滿하였다.<sup>72)</sup>

조동식의 만주 이주는 일제의 만주개척과 집단 이주와는 무관한 형태였다. 더구나 그의 나이로 보나 시기로 보나 민족운동을 위한 도만은 더욱 아니었다. 단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새로운 천지를 찾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떠난 개별적 이주였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길림성 영길현 차로하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명이 참고가 된다.

... 이곳은 장백산 변두리지대인 음마하 강반에 위치하였는데 산천을 끼고 있는 테다 토질이 비옥하여 벼농사를 하기에 짜장(정말로; 필자) 드러난 고장이었다. 이곳은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조선족 인민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상적인 생존의 땅이었다. 이와 동시에 차로하는 장춘에서부터 길림으로 뻗은 도로 중간에 위치한 테다 네 개 현과 두 개 시를 끼고 있기에 번창한 상업시장이기도 했다. 그래서 대량의 조선족 농가들이 이곳에 이사 왔는데 차로하를 중심으로 하고 조선족을 위주로 한 여덟 개의 부락이 형성되었다. ...<sup>73)</sup>

조동식 일가는 차로하 불당촌에 자리 잡았다. 이 또한 한인 마을이

71) 곡애국·증범삼, 『조남기전』, 4~5쪽. 조남기의 모친 상주박씨는 그를 출산하고 나물죽을 쑤어 먹을 정도였다. 2000년, 62년 만에 고향인 강내면 태성리를 찾은 조남기도 자신이 12살 때 나무를 하여 조치원장에 내다 파는 등 곤궁했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였다(『동아일보』 2000. 4. 30).

72)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학교력사연구회편, 『빛뿌리는 발자취』, 연변인민출판사, 2006, 171쪽;趙興衍 서면 증언;곡애국·증범삼, 『조남기전』, 11쪽.

73) 곡애국·증범삼, 『조남기전』, 12~13쪽.

었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한인들은 조동식 일가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후일 조남기는 ‘눈 오는 날 땀감을 갖다 준다’는 말의 의미를 그때 실감하였으며, 이주 초기 먼저 정착한 한인들로부터 육친을 초월하는 정감을 느꼈다고 회술한 바 있다. 이곳에서 조동식 일가는 희망을 지니고 새로운 꿈을 일궈 나갈 수 있었다.<sup>74)</sup>

그러나 칠순이 가까운 노인 조동식에게 만주는 신천지만은 아니었다. 더구나 일본인을 피하고자 도망치듯 건너온 만주였건만 이곳도 온통 일본인 천지였다. 그는 국내나 만주나 일제 치하이기는 마찬가지이니 오히려 조상의 선영이 있는 조국만 못하다고 말하며,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쳤다고 한다. 결국 해방이 되자, 그는 장손 조남봉을 데리고 귀환하였다. 이로써 조남기와는 영영 이별이 되고 말았다.

귀환 후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던 그는 1949년 사거하여 태성리 집 바로 뒤편에 영면하였다.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sup>75)</sup>

## VI. 맺음말

본고는 3·1운동 당시 청주 강내에서 조동식이 주도한 봉화만세운동을 살펴본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9년 3월 23일과 24일, 26일의 3회에 걸쳐 청주 강내에서는 연일 산 위에 불이 타오르고 독립만세 함성 소리가 진동하였다. 한 마을에서 연속 3회에 걸쳐 봉화만세운동이 전개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

74) 곡애국·증범삼, 『조남기전』, 13쪽. 조동식 일가는 차로하 황지포에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토로 일궈는데, 일손이 더 필요하자 강내면 태성리·산단리·부탄리 일원에 사는 장정 10여명을 초치하여 정착하게 하였다. 현재에도 당시 강내면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 몇 가구가 이곳에 살고 있다. 당시 조동식 일가는 농사 외에 새우젓 장사로 얼마간의 돈도 벌었다고 한다(趙興衍 서면 증언).

75) 1977년 대통령표창에 추서되었으나, 상훈법 개정에 따라 훈격이 애족장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시위의 주도자 조동식은 시골 농부치고는 비교적 부유하고 유식한 편으로 주위의 신망을 받았으며, 국제정세에도 감각을 지녔던 인물로 보인다. 그는 ‘烽火告變’의 고사를 떠올려 ‘篝火를 焚火’하며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3·1운동 당시 봉화의 기능과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하고자 하였다. 그가 의도한 대로 봉화만세운동은 신속히 파급되었다. 따라서 그가 주도한 봉화만세운동은 일반 야간 횃불시위와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강내 봉화만세운동 장소는 판결문에 의해 태성리 산정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현지 조사와 증언 청취 결과, 태성리 옆 동리인 산단리 소재 망덕산으로 비정하였다. 산단리는 조동식의 출생지로서 사방이 트인 곳이다. 특히 당일 연기군 주민과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다는 기록으로 보면, 시위대는 사곡리 방향으로 하산하여 절골을 거쳐 황탄나루에서 미호천을 건넌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의 봉화만세운동은 곧 인근은 물론 충남과 경기 일원까지 파급되었고, 만세시위의 또 하나의 전형적 형태가 되었다. 강내에서 연일 계속된 봉화만세운동은 곧 청주 일원으로 파급되어 4월 1일에는 청주군 8개면에서 동시에 산 위에 불이 피어오르며 만세합성으로 메아리쳤다. 4월 8일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횃불시위를 주도한 김순구는 강내 봉화만세운동의 구체적 파급 사례를 실증한다. 강내 봉화만세운동 이전에도 야간 시위가 있었으나, 강내 시위 직후 각지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여 3·1운동 당시 충북에서는 12개 처에서 14회의 봉화·횃불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충남에서는 강내와 연결한 연기군 북면·서면·남면 일원에서 즉각 호응하였고, 4월 들어서는 충남 전역으로 파급되었다. 충남지역은 전국에서도 봉화만세운동이 가장 활발한 양상을 보이는데, 강내 시위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일제는 주민들이 야간에 산에 올라 봉화만세시위를 벌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들은 야간통행 금지와 사전 가택수색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위현장에는 무력을 파견, 실탄사

격을 가하여 다수의 살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동식은 봉화만세운동을 주도하던 도중인 3월 25일, 기독교측 민족대표 박동완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귀향한 김재형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건네받아 배포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 또한 강내 봉화만세운동의 파급력과 조동식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봉화만세운동 주도 후 조동식은 곧 피체되었다. 그는 예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상복심법원에 공소를 신립하였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2년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고향에서 지내던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만주 이주를 결심하였다. 그는 아들과 손자를 따라 1940년 노구를 이끌고 만주로 건너가 길림성 영길현 차로하에 정착하였다. 해방 후 귀환한 그는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영면하였다. 그곳에 남은 손자 조남기는 '조선족의 영웅'이 되었다.

[논문접수: 2013. 4. 26, 심사시작: 2013. 5. 2, 심사완료: 2013. 5. 20.]

주제어 : 3·1봉화만세운동, 독립선언서, 趙東植, 강내 태성리, 金在衡, 趙南起, 만주 이주

【참고문헌】

1. 자료

『白巖朴殷植全集』(동방미디어, 2002).

미국기독교교회총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 「The Korean Situation」(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4집, 1971, 445쪽).

내다니엘 페퍼, 「The Truth About Korean」(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4집, 1971).

朝鮮憲兵隊司令部 ·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朝鮮三一獨立騷擾事件』(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1973).

朝鮮憲兵隊司令部, 『大正八年 朝鮮騷擾事件狀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1973).

「三 · 一 獨立宣言關聯者訊問調書(印宗益 關聯者 調書)」(『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3, 국사편찬위원회, 199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2

「大正8年 刑第271號 趙東植判決文」(1919. 4. 19,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大正8年 刑控第261號 趙東植判決文」(1919. 5. 17, 경성복심법원).

「大正8年 刑上第190號 趙東植判決文」(1919. 6. 12, 고등법원).

「大正8年 公第209號 金舜九判決文」(1919. 6. 18,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大正8年 刑第278號 金在衡判決文」(1919. 4. 19,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大正8年 刑控第260號 金在衡判決文」(1919. 5. 10, 경성복심법원).

「大正8年 刑上第140號 金在衡判決文」(1919. 6. 7, 고등법원).

豊壤趙氏世譜所, 『豊壤趙氏世譜』(五重刊 戊午譜) 4, 1978.

## 2. 논저

곡애국·증범삼, 『조남기전』, 2004, 연변인민출판사.

金鎮鳳, 「湖西地方 3·1運動의 性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 1987.

金珍皓, 「忠南地方 3·1運動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학교력사연구회편, 『빛뿌리는 발자취』, 연변인민출판사, 2006.

박걸순, 「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 제15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0.

-----, 「의병장 韓鳳洙의 항일투쟁」,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2.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時事時報社, 1969.

지수걸, 「일제하 충남 조치원 유지, 맹의섭(1890~?)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 《역사와 역사교육》 제3·4호, 웅진학회, 1999.

청원군·청주대학교박물관, 『文化遺蹟分布地圖 -清原郡-』, 2000.

청주문화원, 『清州의 뿌리를 찾아서』, 2012.

&lt;ABSTRACT&gt;

## The March First Signal Fire Hurrah Movement and Cho Dong-sik

Park, Gul-sun

Three times in a row on March 23, 24, and 26, 1919, signal fires were lit on the mountain and hurrah shouts for independence shook the town of Taeseong-ri Gangnae-myeon. Cho Dong-sik, the leader of this movement, recalled the history that when a war broke out in the nation the signal fire was lit to alert. And then he lit the fire on the top of the mountain and led the movement. The venue for the signal fire hurrah movement had been known as the top of the mountain in Taeseong-ri by the written judgement. However, as the results of the site investigation and hearing of testimony, the venue is corrected to Mangdeok Mountain in Sandan-ri nearby Taeseong-ri.

The movement of this day gave effects to nearby towns as well as to the whole area of Chungnam and Gyeong-gi provinces and formed a typical type of hurrah protest. The signal fire hurrah movement in Gangnae spreaded to the Cheongju area. On April 1, signal fires were lit on the mountains in the eight myeons of Cheongju-gun and hurrah cries for independence were shouted. In this period, fourteen times of movement in twelve areas in Chungbuk province were spreaded out.

Japan used various means to prevent the signal fire movement on the mountain at night. They carried out curfew at night time and

searched houses beforehand. Also they dispatched the army to the site of protest, shot people, and caused a lot of casualties.

Meanwhile, on March 25 Cho Dong-sik handed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ook the role of distribution. At this point, we can assure that the ripple effect of signal fire hurrah movement in Gangnae and the influence of Cho Dong-sik.

Cho Dong-sik was captured by Japan after the movement. He disobeyed the decision of a preliminary trial and had a legal battle. However, he eventually served time in prison for two years. Suffering from the hardships of life after getting out of jail, he decided to migrate to Manchuria. He followed his son and grandson to Manchuria in 1940 and settled in Charoha, Younggil-hyun. He returned to Korea when the nation gained independence, spent his time in his hometown until his death. His grandson Cho Nam-gi who left in Manchuria became 'a hero of Korean-Chinese society.'

Keywords : 3·1 Signal Fire Independence Movement,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ho Dong-sik, Taeseong-ri Gangnae-myeon, Kim Jae-hyeong, Immigration to Manchuria